

해외연수보고서



일정 2015. 6. 2 - 6
장소 중국 복건성 천주시
작성 오광록 · 김옥수 의원

지난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4박 5일에 걸쳐 중국(中國) 복건성(福建省) 천주시(泉州市) 일원으로 의원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서구의회에서는 233회 임시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심의하면서 해외 도시와 문화예술을 교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논쟁이 있었고, 본 의원은 우리 구에 과연 해외도시와 교류할 만한 문화예술이 있는지 질문을 했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뚜렷하게는 없지만 미래를 위해 상징적으로 바라봐 주시라는 답변을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이지만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는 조건부로 수용했었다.

그 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중국의 천주시와 일본의 요코하마 그리고 광주시가 각 국의 문화관광부 장관과 시장 등이 서로 교차방문을 했었고, 작년에 요코하마 방문에 이어 올해는 천주시 방문이 예정돼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 본 의원도 작년에 마찌즈쿠리(마을 만들기), 사회적 기업 등 주민자치의 종주국으로 불리는 일본의 도쿄 일원과 요코하마를 시찰한 경험에 이어 올해는 광주시와 중국 천주시의 문화예술 교류에 우리 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목적지를 그 곳으로 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시나 크고 작은 시행착오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6월 중순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기점으로 혹서기 이전에 다녀와야 한다는 일정상 5월 임시회 직후와 정례회 이전으로 출국 날짜를 잡아야 했고 서둘러 추진하게 되니 준비가 부족하게 되었다.

통상 관광지 패키지 상품이 주종인 해당 여행사에서도 처음 잡는 도시에 연수코스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고 사전에 협조를 약속했었다. 방문지 선정 등에 많은 도움을 주신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교류하는 천주시 이외에는 위원회와 공동으로 의회에서 직접 협조공문을 보내야 한는데 일정이 촉박하여 결국 천주시는 공식방문으로 하고, 하문시(廈門市)와 장주시(漳州市)는 현지에서 직접 추진해 보도록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추후 아쉬움으로 남게 되는 대목이 되었다.

출국 전 현지에 대한 정보가 매우 취약했지만 사전조사와 준비를 마치고 08:20 예정된 인천공항 출국수속을 위해 이른 새벽 04:30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환송 나오신 사무국 직원들의 배웅을 뒤로 하고 연수길에 오르게 되었다.

대한항공 국제선이 10:20 출발하여 기내식으로 점심을 때우며 3시간 10분을 비행한 후 도착한 샤먼공항은 현지 시각 12:30으로 우리와 약 한 시간이 늦는 시차가 있었다. 도착 직전 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취안저우시는 말 그대로 물이 풍부한 고장 泉州였다.



공항 입국수속에서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아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며 밖으로 나온 일행은 A4용지에 여행사 이름을 써 들고 일행을 기다리던 현지 가이드를 만났고 본격 일정이 시작되었다.

첫날 일정은 만석식물원, 남보타사, 하문시청, 하문시사회복지원 방문으로 짜여 있었다. 그러나 공식방문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일행은 불안한 마음에 관공서를 우선 방문 후 문화시설을 탐방기로 현장에서 조절을 했고 첫 방문지인 하문시사회복지원을 향했다.



이면도로 안쪽에 위치한 5층 높이에 우리 서구청만한 커다란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복지원 직원이 용무를 물었고 우리는 가이드의 통역을 통해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담당직원의 안내를 요청하였으나 대답은 상부의 통지가 없으므로 내부 시찰은 불가하다였다. 예측은 하였으나 궁색해진 우리는 운영에 관한 설명을 부탁하며 이어진 질문에 다음과 같이 길지 않는

설명을 해줬다.

중국도 5대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 사회구제, 사회복지, 우대부양조치, 사회상호지원)가 시행되고 있는데 제도 중 사회보험(양로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의료보험, 주택적립금)에서 양로보험 가입률이 80% 정도이며 2020년까지 95% 이상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2014년부터는 복지원에서 의료보험 서비스가 실시되는 등 사회복지는 증가하였으나 농민공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은 사회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있어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으로 사회복지원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한다.

독거노인, 결손가정, 장애인 등 약 600명을 수용하고 있는 하문시복지원은 국가지원과 사회단체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복지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충당하고 있는데 빠듯한 살림살이에 재정난을 호소하는 것을 보며 우리나라 중국이나 복지 관련 재정은 어디나 열악하다는 씁쓸한 공통점을 느끼며 일행은 하문시청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광주시 인구의 두 배 반이고 면적은 세 배 크기의 도시를 관할하는 하문시청에 도착한 일행은 걸어서 다니기는 벽찰 정도의 면적과 청사 크기에 놀랐고, 우리로 말하면 경찰인公安(公安)이 청사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데 또 놀라야 했다. 이유를 물으니 시청 내에 행정기관과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인 중국공산당 기관이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어쩔 수 없이 메모드 크기의 청사 앞에 걸려있는 마오쩌둥 (毛澤東) 주석께서 쓰셨다는 붉은색 휘호 앞에서 기념 촬영만 하고 남보타사로 향하는 차 내에서 가이드로부터 간단한 설명이 있었다. 하문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5대 경제특구 중 하나이고 부성급시(副省級市)로 지정되었으며 타이완, 홍콩, 마카오와 인접하여 외국인 직접투자가 개방되어 많은 수출입 물동량으로 최근 급속한 도시 팽창이 이룩된 부자도시라고 자랑하였다.

아열대 기후의 아름다운 경관도시 하문은 세계적 휴양도시라는 설명과 함께 창 밖에 펼쳐지는 신도시의 스카이라인과 지어지고 있는 고층 건물들이 내가 마치 부산의 해운대를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하였다.

잠시 후 도착한 하문시에서 가장 오래된 절 남보타사(南普陀寺)는 당나라 때 창건 되었으며 절강성(折江省) 보타산(普陀山) 남쪽에 있어 남보타사라 부르는데 가는 곳마다 엄청나

다는 느낌이 드는 사찰 건축양식에 감탄하며 관람을 마치고, 인근 하문대학교 정문을 지나 만석식물원을 향하는 차창 밖으로 버스 정류장에 책들이 꽂혀있는 작은 시설물이 눈에 띄어 급히 차를 멈추게 하고 그 곳으로 되돌아 가봤는데 그곳은 처음 보는 길가 도서관쯤 되는 시설물이었다.

나의 기억에 70년대쯤 오락실에서 봤던 LP판 레코드가 꽂혀있는 주크박스를 연상케 하는 책 전시대가 요즘 길가에 흔히 있는 자판기처럼 책 자판기라고 해도 될 듯한 ‘24시간 자율도서관(廈門市24時自助圖書館)’이었다.



한문으로 써져있는 안내문을 짧은 한문 실력으로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내용 상 대출카드를 미리 발급 받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필요시 가까운 시설물을 찾아 카드 주입구에 카드를 삽입하고 원하는 책의 번호를 누르면 그 책이 배출구로 나오고 다 읽고 난 책은 반대쪽 반납구에 투입하면 관리인이 다시 서가를 정리하는 시스템인 듯 보이나 시내 곳곳에 간혹 눈에 띄는 시설물들은 모두 새것들이었고 이용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하문시에서 새로이 실시하는 정책인

듯 싶었다. 우리도 가능하면 우리 구 내의 다중 이용 시설인 터미널이나 시내버스 승강장 또는 운천호수, 풍암호수 주변에 설치하면 좋은 호응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러운 정책이었다.

이윽고 도착한 곳은 만석산에 위치한 하문원림식물원이었다. 도심에 있으나 식물원 내부를 돌아보려면 5구간에 걸쳐 3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관람용 셔틀버스를 타야할 만큼 대단위 식물원이었다.

1960년에 개원하여 현재는 각종 아열대 식물이 원시림을 이루고 있고 각 수종별로 구분하여 조성한 20여 개의 테마 식물원에는 180만 그루의 관목과 3,000여 종의 열대, 아열대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예비 신랑 신부들의 웨딩포토 명소로 알려지며 그 날도 7~8쌍의 예비부부들이 인공안개가 자욱한 호숫가에서 각종 포즈를 취하며 사진 촬영에 여념이 없었다.



마지막 코스로 크고 작은 선인장들 사이에 낙타 조형물들이 서있는 선인장원 언덕 위 매점에서 가이드도 없이 영어 한마디 알아듣지 못하는 종업원에게 손짓 몸짓 섞인 보디랭귀지로 어렵게 사먹은 통 야자열매 주스 맛이 지금도 즐거운 기억으로 떠오른다.



첫날 일정을 모두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며 저녁 식사 후 동네구경을 위해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볼 계획을 가이드에게 상의하며 야시장이나 양 꼬치구이와 간단한 토속주를 맛볼 수 있는 곳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근처 3블록쯤 떨어진 곳에 야시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외지에 가면 그 곳만의 토속주를 찾아 마셔보는 취미가 있는데 그것은 음주와 음식이 그 곳의 가장 기초적인 문화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작년 일본연수 보고서와 3년 전 터키연수 때 개인적으로 작성한 기행문에 이미 기술했음을 밝혀둔다. 야시장을 찾아 어두침침

한 도심의 밤거리로 나섰다.

대도시의 밤거리 치고는 그리 밝지 않았고 주변을 살펴 보면서 가로등이 서로 멀리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며 자세히 봤다. 우리는 가로등 전구가 지면을 직접 비추는데 그 가로등은 조명이 위를 비춰 갓을 썩워 반사되게 하는 간접조명이었다. 빛의 효율성이 떨어질 텐데 그 이유는 알아내지 못하였다.



이윽고 기대를 안고 도착한 야시장은 그냥 평범한 시장이었고 대부분이 철수를 준비하는 과장 분위기였다. 이왕 왔으니 그냥 음식점이라도 들어가 그 곳 음식을 먹어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식당 입구에서 풍겨오는 느끼하면서도 독특한 향이 섞여 있는 냄새가 저절로 발길을 돌리게 했다. 연수 때마다 경험하는 가장 편한 방식인 음식을 사들고 호텔 방으로 가는 방법으로 결론이 났다.

내가 아는 중국어는 딱 한 마디 “또우 사우 쨌엔?(얼마입니까)”과 “이 얼 썬 쓰 우 리우 치 빠 기우 쓰” 정도인데, 과일가게 주인의 계산기 수치와 일치하는 손가락 숫자가 나타

내는 금액을 지불한 현지 열대과일 값이 싸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아야 했고 동네가게에서 ‘칭따오삐주(靑島卑酒)’ 몇 병을 사 들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와는 다른 몇 가지가 눈에 띄었다.



그 중 하나는 거리 곳곳에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구분하는 두 개의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고,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와 개구리 주차를 못 하도록 블라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인지 거리가 참 깨끗하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야간 운전자를 위하여 교통표지판에 LED다이오드 전구를 이용하여 불이 들어와 눈에 잘 띄는 길안내를 하고 있었고, 인도와 통행로가 접한 부분의 블라드에도 불이 들어와 야간 보행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였다. 우리는 공중화장실 입구에만 조그만 안내표시가 있는데 그 곳에는 커다란 안내판이 100M 전방 거리에서부터 안내를 하는 등 인민을 위한 정책이 부러웠다.





이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인민과 당은 수어지교(水魚之交)이다”라는 위민정책(爲民政策)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본 연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둘째 날이 되었다.

출발 전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의 도움으로 예정된 광주시와 문화교류 도시로 선정된 천주시를 공식방문하기 때문이다. 예정된 브리핑 장소인 ‘천주시 해외교류 박물관’(泉州市海外交通史博物館)으로 향했다.

탁류가 흐르는 도시하천 옆에 위치한 박물관에 도착하니 지앵싸우리앵(丁䟽玲) 천주시 문화국 부국장 겸 박물관 관장과 천샤오보(陳少波) 천주시 문화국 과장 등 다섯 분의 관계자들이 영접을 나와 있었다.



그 곳에 도착해서야 시청 직원들을 만나는데 왜 시청으로 초청하지 않았는지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해외교류 박물관에서 해외와 문화예술 교류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먼저 박물관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내부 시설을 시찰하였는데 그곳에 광주시와 요코하마 그리고 천주시의 교류 안내 부스가 한 칸 있었고, 외국에서는 태극기만 보아도 가슴이 뭉클한 애국자가 된다더니 중국에서 고향 광주의 문화예술을 접하니 이 또한 기분이 좋은 일이었다.

박물관 시찰을 마치고 회의실에서 지영싸우리엔 문화국 부국장의 주제로 브리핑이 있었는데 그동안 광주와 천주는 양국을 오가며 가진 문화예술 교류행사에서 광주가 아시아문화예술의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와 소통의 허브로 재탄생하는 과정으로 구성된 ‘광주의 꿈과 미래,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영상을 상영해 극찬을 받았고, 천주시는 중국무

형문화재 남음악단, 손인형극과 사자춤, 가무극단, 고갑전수 센터 등의 공연이 있었다. 그리고 천주시에서 직접 ‘해상실�크로드예술제’를 주최하는 자리에서 광주시는 화려한 미디어 아트와 현대무용의 아트콜라보레이션 ‘ASIAN 빛’을 선보이며 극찬을 받는 등의 다양한 교류를 해 왔다는 설명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지앵싸우리엔 부국장은 천주시와 광주시의 문화 교류가 계속 발전적으로 이어지기를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브리핑이 끝나고 천주시 측에서 마련한 오찬장으로 초대되어 과분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 오찬장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말 그대로 중국집 대형 연회장 원탁에 10명이 둘러앉았는데 미리 연락을 해서 이미 산해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다.

천주시가 해안과 접해 있어 우선 해산물이 차려져 있었다. 꽃게, 새우, 생선 등이 튀겨지고 삶아져 있고 연달아 삶은 돼지고기, 촌닭 볶음, 오리 찜 등 육류가 야채, 수프와 곁들여 계속 나왔는데 기름지고 좋은 반찬에 우리는 통상적으로 반주를 곁들인다 하자 지앵싸우리앵 부국장께서는 정색을 하며 자신들은 근무 중 음주는 엄금하고 있다며 연신하여 찻잔에 지역 특산품이라는 우롱차(烏龍茶)를 따르며 마시기를 권하였다.

서로 상대방의 문화예술을 칭찬하며 밝은 분위기가 이어졌고 동석한 박물관 연구원 두 분은 학술 연구차 목포 해양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며 신안해저유물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고, 오후 일정에 개원사를 탐방한다 하자 그곳에 신안에서 발견된 유물선과 동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선이 복원되어 있으니 꼭 보시라 권하였다. 지앵싸우리앵 부국장께서도 4일째 일정에 해천당구를 방문하여 관람 예정인 남음공연과 인형극 공연이 이미 광주시와 교류행사에서도 선보였었다며 역사와 전통을 길게 자랑하였다.

외국에서 온 처음 대하는 손님들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푸심에 깊은 감사 인사와 다음에 광주를 방문하시면 꼭 한 번 모시겠다는 약속을 뒤로 하고 보람된 공식방문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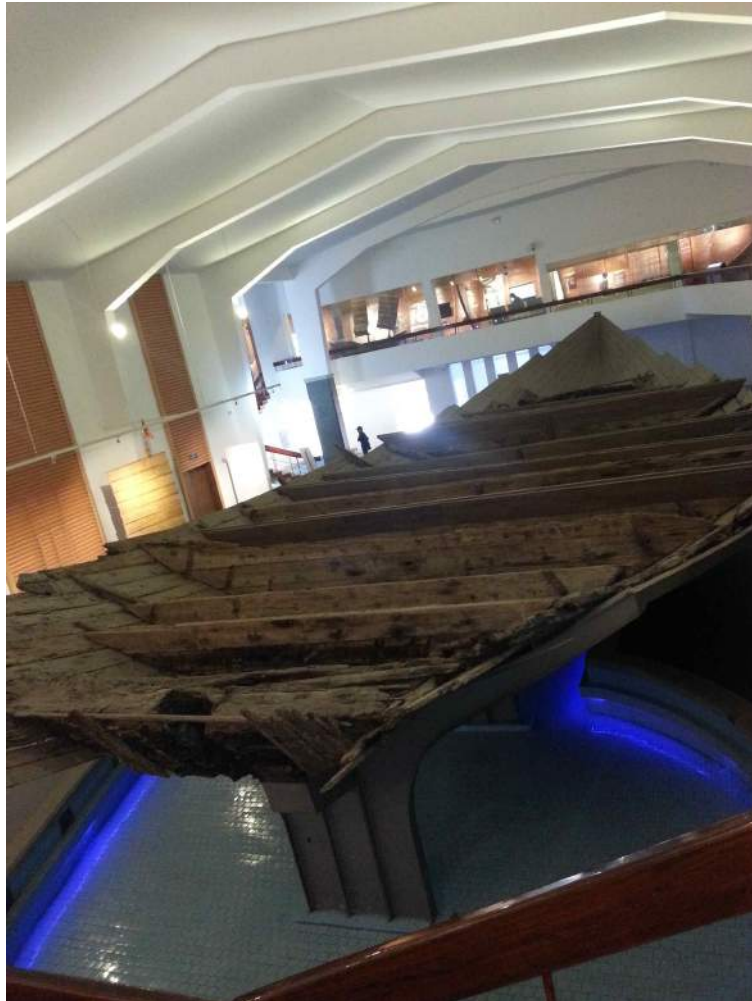
오찬장에서 복원 전시된 해저유물선 설명과 함께 꼭 살펴 보시라는 요청이 있었던 개원사를 향하였다. 서기 686년 건립되어 13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개원사 역시 엄청난 규모였다.

한참을 걸려 한 바퀴를 둘러보던 중 가이드의 자랑대로 중국 최대의 탑이라는 동쪽 진국탑과 서쪽 인수탑은 8각형 5층 석탑인데 웅만한 우리 절 대웅전 크기에 높이가 40m인데 온 벽면이 384쪽의 조각품으로 장식된 빼어난 예술품으로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사찰 곳곳에는 복건성의 省木이라는 몇 아름드리 용수가 줄기에서 뻗은 뿌리로 받침대를 이룰 정도의 기이한 형태를 이루는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또 다른 용수는 뿌리가 온통 바위를 휘감고 있는 모습들은 안젤리나 졸리 주연의 영화 톰 레이더에 나오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촬영한 신을 떠오르게 하였다.



인수탑 뒤편에 해저유물선 전시장이 지어져 있었다. 인양된 배는 원형에 가깝게 복원되어 전시되고 있었는데 그 크기가 신안해저유물선의 두 배는 더 될 성 싶었다.



엄청난 유물이 실려 있었다던데 유물들은 어찌 했으며 왜 바다 속에서 건져 올린 배를 산에 있는 절에 전시를 했는지 물었으나 가이드가 모르겠다고 하여 아쉬웠다.

한참을 걸어 나오는 길에 들른 화장실이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져 있었는데 나라가 크니 절도 크고 절이 크니 탑, 나무, 화장실도 다 컸다. 그러나 소변실과 대변실을 구분해 놓은 화장실 변기 앞에 적힌 글은 우리와 같아 웃음이 났다.

“앞으로 한 발 더 오시오, 방울이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흘째 되던 날은 아침 일찍 일정을 서둘러야 했다.

금번 연수 중 최대 이동 거리인 왕복 6시간 거리에 있는 장주시(漳州市) 남정토루(南靖土樓) 탐방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는 길에 있는 장주시청에서는 혹시 문화예술에 대한 브리핑이 가능할까 하여 시청 정문 경비 책임자에게 열심히 설명도 하고 인민을 위한다는 공무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겁박도 해보고 대한민국 관공서는 누구나 출입이 자유롭다고 비교도 하며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장주시 공안의 답변도 역시 똑 같았다.

“당이나 상부의 지시 없이는 출입이 절대불가 합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해발 1,200m 쯤 높이에 위치한 토루군 탐방길은 멀고도 험했다. 소나기가 오는데 오른쪽은 낭떠러지요 왼쪽은 절벽인 2차선 꼬부랑 산길을 현지 기사는 엄청난 과속을 했고, 긴장 속에 목적지에 도착할 때 쯤 소나기도 그치고 청명한 하늘과 푸른 숲 사이에 토루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푸젠성 토루는 약 700년 전 중원에 진출해 있던 한족(漢族)이 전란을 피해 남하하여 오지에 황토흙과 대나무를 이용하여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3~5층의 방어용 작은 씨족성(氏族城) 쯤 될 듯싶다. 그 이유는 각 토루마다 같은 성씨끼리 집성촌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 채 당 50~60 가구쯤 거주하는데 1층은 식당, 2층은 창고, 3층 이상은 거주공간으로 목재계단을 이용하는데 3층 이상에만 조그만 창문을 두고 대문도 하나만 두어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토루는 모양에 따라 방형, 원형, 타원형 등이 있는데 우리가 방문한 전라갱(田螺坑)은 가운데 방형토루를 중심으로 사방에 4개의 원형토루가 자리하고 있어서 위에서 내려 보이는 모양을 1탕 4채라고 불렀다.



1960년대 중국의 핵시설을 탐지하던 인공위성에 찍힌 사진을 보고 특이한 모양에 핵시설로 오해를 했었고 그것이 토루가 외부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하니 참 아이러니했다.

지금은 국가문화재(國家級主要文物銘村)로 지정되었고 수백년 간 지진에도 버티며 잘 보존되어 왔으나 현재는 내·외부에서 원주민들이 거주하며 음식점, 기념품 판매점, 노점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원형이 훼손되고 혼잡하고 지저분한 환경은 마뜩치 않았는데 정비가 되기 전 원주민들이 살고 있을 때 방문했던 낙안민속촌이 떠올랐다.



관광수입도 중요하지만 훌륭한 문화유산을 온전히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정비사업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했다.

연수일정 중 마지막 날은 하문시 그랑쓰(鼓浪嶼)라는 섬으로 이동하였다. 여객선을 타고 입항한 그랑쓰는 파도소리가 북소리처럼 울린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하는데 자연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중국의 대표적 휴양지로 유명하다.

아름다운 해변을 끼고 조성된 일주도로를 타고 섬 반대쪽으로 걸어가자 숙장화원(菽庄花園)이라는 조경이 뛰어난 관광구역 내에 근대 건축물들이 있었고 그곳에 피아노 박물관이

구성되어 있었다. 내부 촬영이 금지된 피아노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피아노가 전시되어 있다는데 1700년대 제작된 희귀한 피아노부터 현대적 작품까지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근대사 이전까지 섬 자체가 대부호의 사유지였고 그가 수집하고 구성해서 국가에 헌납한 것이 현재에 이르러 수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인근에 해전당구(海天堂構)라는 지역 문화시설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틀 전 천주시 문화국 지영씨우리영 부국장께 설명 들었던 중국 전통문화이며 광주시와 교류방문 때도 공연되었다는 남음(南音)과 전통인형극이 시연되는 곳이었다.

먼저 2층 공연장에서 남음연주와 소리를 관람하였다. 공연장은 소극장 형태였는데 원탁이 십 여 개 놓여있고 둥근 통의자가 몇 개씩 둘러 있는데 한 번 공연에 60~70명쯤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오전과 오후 2회씩 하루 4회 공연하였다.



남음은 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음악으로 우리의 동편제, 서편제가 있듯이 그 곳의 형식으로 4명의 악기연주와 별도로 소리가 포함되기도 했다. 2006년 국가무형문화재(國家非物質文化遺產)로 등록되었고 2009년에는 UNESCO 인류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었다 한다.

공연이 끝나고 남음연주단장과 면담이 있었다. 본인이 인간문화재이며 광주 공연 때도 방문했었고 우리 국악에 대한 칭찬과 함께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합동공연을 하고 싶다고 밝혔으나 그것은 광주시 또는 동아시아문화교류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 대답이 곤궁했다.



남음공연이 끝나자 잠시 후 1층 공연장에서는 인형극이 시작되었다. 인형극 공연장도 남음 공연장과 규모나 시설은 비슷했고 비록 소극장 규모지만 공연마다 객석을 모두 채우는 중국의 문화수준이 약간은 부러웠다.

그 곳은 인형극 자체가 아래쪽에서 위를 향해 인형들을 내밀고 하는 공연인지라 적절한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왕과

신하의 대화로 시작되는 인형극은 스님, 무용수, 동물, 사자 춤 등이 펼쳐졌는데 조그마한 인형이 접시돌리기, 여의봉 돌리기, 리본 춤 등을 선보이며 관객들로부터 찬사와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그랑쓰 순방을 마치고 하문시 선착장에 도착 무렵 뱃전에서 승객들의 탄성이 울려 바다를 내려 보니 하얀 돌고래 떼가 근처에서 자맥질을 하는 모습이 잘 가꿔진 자연과 어울려 아름답게 다가왔다.

우리도 얼마 전 동물원에서 사육하던 돌고래를 방사하는 행사가 보도되었던 것처럼 자연을 잘 보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으나 우의를 입고 호리산 포대(砲臺)를 방문했다.

바다를 향한 조망이 아름다운 하문시는 군사적으로도 중요

한 지형이 갖는 요충지였다. 1890년대 청나라 시절 서양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엄청난 금궤를 지불하고 독일로부터 수입했다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대포인데 포신이 14m 무게가 60t에 달하는 무기를 배로 수송해서 산꼭대기에까지 옮겨서 요새를 만들었으나 결국은 영국, 프랑스에 이어 일본에게도 점령당하는 수모의 역사가 뒷맛을 씹쓸케 했다.





그러나 우리와 역사적 평행선상에 있는 중국이 호리산 포대를 호국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음은 우리가 본받을만한 정책으로 내가 작년에 서구문화원 기관지 ‘빛고을문화’에 기고했던 바처럼 우리 지역 마륙동 탄약고 주변에 산재해 있는 포로수용소, 광주최초활주로, 일제가 주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조성한 4개의 방공호 등 근대 전쟁유적들을 연계하여 청소년을 위한 ‘애국심 고양을 위한 교육장’ 조성사업과 맥을 같이 하는 사업을 추진해봄직 하다는 생각이다.

이상으로 연수관련 일정을 모두 소화한 후의 느낌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두 가지 정도는 결론을 내야 했다.

하나는 그간 시찰한 내용 중 어떤 부분을 어떻게 우리 구의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가 인데 사회복지 부분은 우리와 대동소이하고 어찌 보면 우리의 정책이 더 우수하다는 느낌이었고, 유물유적 관광자원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이니 차치하

고라도, 문화예술 교류 부분도 아쉽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업무적 접근성, 가용성의 한계가 있는 광역시급 사업이었다.

그러나 본 연수 중 비중이 작은 부분이었지만 ‘하문시24시간자율도서관’과 호리산 포대의 ‘호국교육장’은 우리 구의 정책에 바로 반영해도 됨직한 사업이라 생각된다.

이 중 ‘호국교육장’ 부분은 며칠 전 서구문화원 측에 탄약고 주변의 근대 전쟁유적들에 대한 자료조사와 역사교육장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기초조사를 의뢰하였음을 밝혀 둔다. 또 하나는 매년 반복되는 많은 비판 의견 속에 다녀와야 하는 지방의원 해외연수 문제이다.

모두에 밝혔듯이 우리 서구의회에서도 세 가지 의견이 있는 현실 즉, 혈세낭비이니 안 간다는 의견과 이왕 세워진 예산이니 계획을 잘 세우고 많이 배워 오자는 의견이다. 그리고 어쨌든 다녀와야 한다는 의견 중 올해도 두 번째 의견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으나 예산사용의 첫 번째 덕목인 ‘Value for money(돈값)’을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답변에 자신이 없다.

내년에도 해외연수 기회가 되면 신중한 검토 끝에 결론을 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2015. 7.

작성자 : 서구의원 오광록, 김옥수